산업통상자원부 MINISTRY OF TRADE, INDUSTRY & ENERGY

보도참고자료

희망의 새시대

http://www.motie.go.kr

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문의: 조선해양플랜트과 최규종 과장, 이진모 사무관(2110-5621)

해양플랜트 기자재 국산화 본격추진

- 조선 3사, 기자재업계 공동으로 "밸브 국산화협의회" 구성, 본격 활동 개시 -

□ 산업통상자원부(장관 윤상직)는 현대중공업, 삼성중공업, 대우조선해양 등 수요기업과 40여개 중소 기자재업체, 산업단지공단들이 공동으로 "해양플랜트 밸브 국산화협의회('밸브 클러스터')"를 구성하기로 했다고 밝힘.

○ 협의회는 최근 (주)엔케이(이하 NK)를 운영주간사로 선출했으며 9.13(금) 창립총회를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갈 예정임.

□ FPSO(Floating, Production, Storage & Offloading; 부유식 원유 생산·저장·하역설비) 등에 사용되는 해양플랜트 밸브는 원유, 가스, 모래, 해수 등 다양한 유동물질에 노출되고 극한 환경에서 사용되어 특수소재로 제작되고 있으며,

○ 높은 수준의 품질, 신뢰성, 안전성이 요구되는 품목 특성상 발주처가 공급사를 지정하거나, 기존 납품실적(track-record)을 요구하기 때문에 중소기자재업체의 시장진입에 애로가 많다고 지적되어 왔음.

< FPSO >



< FPSO용 밸브(예시) >



□ 해양플랜트 밸브는 80%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최근 밸브 수요증가에 따라 수급이 불안정해 우리 해양플랜트 제작업체들이 공정준수에 애로를 겪고 있음.

○ FPSO 1척에는 2,000여종, 4,500여개의 밸브가 사용되며 누적 가격은 약 500억원(150억원 ~ 880억원)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짐.

○ 한편 우리나라 해양플랜트 수주액은 2008년 41억불에서 2012년 221억불로 연간 40.1%씩 증가하고 있어, 밸브 등 핵심 기자재의 안정적 수급이 매우 긴요함.

□ 산업부는 해양플랜트 밸브의 안정적 공급기반 마련을 위해 조선 3사, 40여 중소 밸브업체들과 공동으로 "해양플랜트용 밸브 국산화협의회"를 구성했으며, 9.13(금) 창립총회를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갈 예정임.

○ 협의회는 해양플랜트 밸브의 국산개발 방안과 함께 해외 벤더와 합작사 설립, 투자유치 등 국내 공급기반을 확충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게 됨.

※ 밸브 클러스터 참여현황

- 전담추진기관 : (주)NK
- 조선소 : 현대중공업, 대우조선해양, 삼성중공업
- 기자재기업 : (주)NK 등 41개사
- 지원기관 : 산업단지공단, 조선기자재연구원, 부산발전연구원 등

□ 이번 협의회 설립은 대기업인 수요기업과 중소기업인 기자재업체가 공동으로 해양플랜트 기자재 국산화를 추진함으로써 상생협력 기반을 마련했다는데 의의가 있음.

○ 조선해양플랜트 업계와 기자재 업계는 9.12(목) 개최된 제10회 조선해양의 날, 상생협력 생태계조성 협약을 체결한 바 있음.

□ 산업부는 협의회 활동을 통해 발굴된 과제에 대해 기술개발, 벤더 등록 지원과 투자애로 사항을 적극 해소할 예정임.

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
산업통상자원부 조선해양플랜트과 이진모 사무관(☎ 02-2110-5621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